

최종편집 : 2021-10-19 10:05 (화)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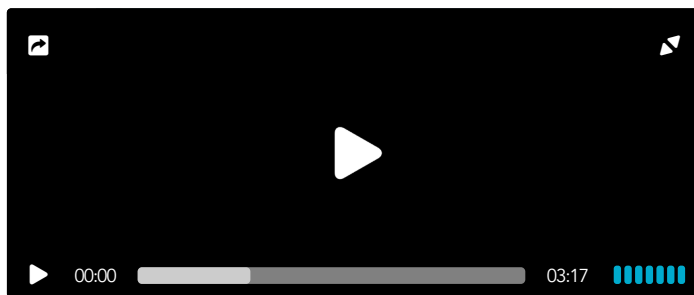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홈 > 불교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영취산 그대로가 법신 부처님”

홍진호 기자 | 입력 2021.10.18 10:31 | 수정 2021.10.18 23:06 | 댓글 0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1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승보와 법보, 불보종찰을 잇는 423킬로미터 고행길을 종착지 통도사에서 회향한 순례단의 마지막 일정을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뉴스

- 불교 |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 불교 | 제222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2일 개원...내년...
- 불교 | 로터스월드-전국비구니회, 동남아 사찰 4차 지원...
- 불교 |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10월22~24일로 연기
- 불교 | 조계종 12대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현 수석 부단...

포토뉴스



인기뉴스

-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 “영취산 그대로가 법신 부처님”
-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前 제주시 국장 '상습성 인정'..."
- 노인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능한 늦게 가는 구조 만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경 제권 추진 박차
-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 대 장정 마침표...통도사에서 회

기자

432km의 묵언행선이 마침내 불보종찰 통도사에 닿았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 된 ‘금강계단’ 으로 가는 길마다, 환호와 박수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삼보순례단은 부처님을 뵈겠다는 설렘에 천리 길의 고단함을 잊고, 맨발로 ‘통도사 사리탑’ 을 세 번 돌며 참배했습니다.

삼보사찰 108천리순례를 마친 모든 이들이 한명, 한명 소개되고,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에게서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에게로 죽비가 전달됐습니다.

[현문스님/ 통도사 주지]

문수보살을 통해 자장율사에게 전해진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 된 곳.

이 땅위의 모든 스님들은 이곳에서 부처님을 만나 득도를 한 곳에서 영축총림 방장스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파스님/ 통도사 방장]

또 불교계를 넘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유승민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등이 불교중흥을 위한 장엄한 법석을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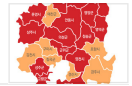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회향 발원문 중에서]

“영취산 그대로가 법신 부처님이셨던 것입니다. 함께 걸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한국불교 중흥에 마음을 모을 겁니다.”

가슴 뭉클한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회향식 현장은 주관 방송사인 BBS의 TV와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 됐으며, 18일 저녁 6시 30분에 이어 23일 오후 2시 30분에도 BBS TV 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탠딩] 영호남을 가로지르며 12개 시군을 지나 마침내 부처님께 다다른 423Km는 1700여 년 한국불교 역사를 두 발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6 경북 16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경북도 '지방소멸'



7 오세훈, 전임 사장 추진사업 일제 점검...관련 단체 반발



8 [코로나19]부산 중학교 집단 감염 등 40명 확진



BBS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사상'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NEW

이현구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송광사에서 출가를 해 해인사에서 법을 만나고 통도사에
서 부처님께 다다른 대장정의 도반 수행자들은 상월결사 2
주년을 맞는 11월 11일에 회합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홍진호 기자 jino413@naver.com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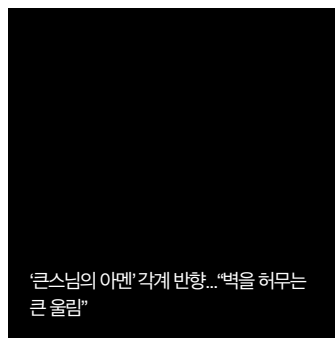
추천
0



반대
0

당신만안본뉴스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배재수의 크로키] '위드 코로나'와 남산의 가을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뉴스파노라마 한글날특집] 김무봉 명예교수 "첫 한글...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
에 부활한다



제222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2일 개원...내년 예산



로터스월드-전국비구니회,
동남아 사찰 4차 지원 실시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10월
22~24일로 연기



조계종 12대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현 수석 부단장 선



김태연 주무관 "제주시 거
울철 고병원성 A차단 총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종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BS**